

또다른故郷

故郷에 돌아온날밤에

내 白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房은 宇宙로 通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속에 곱게 風化作用하는

白骨을 드러다 보며

눈물 짓는것이 내가 우는것이나

白骨이 우는것이나

아름다운 魂이 우는것이나

志操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白骨몰래

아름다운 또다른 故郷에 가자.

一九四一、九、

또 다른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나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1941.9.